

2012년의 시작은 '사랑의 헌혈' 과 함께

22사단 2월 중순까지 2천여명 혈액 기증 ... 안정적 혈액수급 큰 보탬

흑한과 폭설로 몸도 마음도 잔뜩 움츠러드는 요즘, 육군 제22보병사단은 2012년의 시작을 '사랑의 헌혈'로 시작하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다.

22사단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사단사령부를 포함한 각급 예하부대를 순회하며 성분헌혈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헌혈을 통해 사단 장병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다지고, 지역사회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사단 전 작전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전혈 헌혈이 불가하기 때문에 40분 이상 소요되는 혈장 성분헌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100명에 육박하는 많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나눔의 소중함을 실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을 맞아 헌혈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5~7일분의 안정 보유량에 크게 밀리는 3.6일분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어 혈액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22사단 장병들은 2월 16일까지 실시하는 '사랑의 헌혈'을 통해 약 2천여 명의 장병들이 100만cc의 혈액을 기증함으로써 부족한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헌혈에 참가한 방공중대 허원석 상병(23세)은 "새해를 헌혈로 시작해 뿌듯하다"며 "이번 헌혈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 수혈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호 기자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이 2012년의 시작을 '사랑의 헌혈'로 시작하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다.

주민 스스로 화재안전 의식 조성

속초소방서, 고성지역 이장 5명 '화재안전 지킴이' 위촉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정광석 이장 등 고성지역 5개 마을 이장과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김남선 이장 등 6명의 이장들이 속초소방서 화재안전 지킴이로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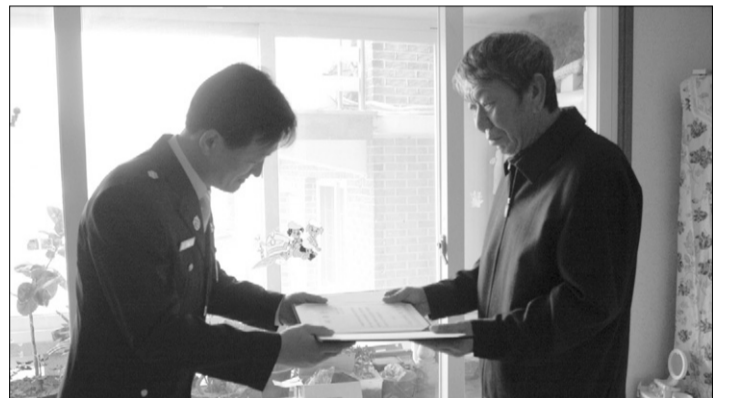
속초소방서는 지난 3일 겨울철

화재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화재안전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 안전 지킴이 마을을 선정하고, 각 마을 이장을 화재안전 지킴이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화재안전 지킴이 마을

로 선정된 고성지역 마을은 현내면 마달리(이장 조영찬), 죽왕면 문암1리(이장 정광석), 토성면 용촌2리(이장 노재준), 용암2리(이장 이종선), 성대1리(이장 엄진서 1) 등이다.

최광호 기자



속초소방서 동광119안전센터 관계자가 지난 3일 죽왕면 문암1리 정광석 이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송림과 해당화가 어우러진 철새도래지 화진포 갈대밭에서 듣는 가을동화의 사랑이야기

화포리펜션은 가족단위의 휴식처는 물론 방문하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좋은 곳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봄이면 신비한 들꽃과 함께할 수 있고 여름이면 집 주위의 울창한 산림과 계곡물로 더위를 식히고 가을이면 하늘 풍경에서 딸 수 있는 밤이 주렁주렁 눈 내리는 겨울이면 눈꽃이 연출한 절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화포리펜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132번지
www.hwapor.co.kr ☎033-682-1223, 010-6309-0003